토요저널
www.toyonet.co.kr

(2026년 9월 22일 화요일 6면)

기후위기 대응은 보편적 복지입니다



이희승 의원
(잠실본 · 잠실2 · 잠실7동)

저는 오늘 생활폐기물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안전,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송파구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송파구는 동별 지정 요일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. 폭염 등 기후 여건을 고려해 상가 밀집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는 탄력적인 수거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환경공무관의 인력 여건과 노동강도를 점검하고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.

2024년 기준 송파구의 생활계폐기물은 하루 평균 735톤, 연간 약 26만8천 톤이 발생하며 약 60.4%가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자원순환 정책은 폐기물과 재활용량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이에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거 실태 분석과 환경공무관 안전대책 마련, 관내 56개 정비사업의 건설폐기물 자원순환 가이드라인 수립, 자원순환 성과지표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의 정기적인 측정 · 공개를 요청드립니다.